

[기획]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1

- ◆ 일시·장소 : 3월30일 나주교회
- ◆ 인터뷰 대상 : 호영씨(가명·베트남·24세)
- ◆ 조사원 : 전남대 문화예술 특성화사업단 연구원 박경동
- ◆ 녹취 : " 연구보조원 안수현

회사 다니고 잘산다고... 결혼정보회사 거짓말 농사 짓고 매일 힘들어요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베트남에서 아는 언니가(소개했어요). (언니에게)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결혼)했어요.
-결혼 전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한국 연속극 좋아요(좋아했어요). 날마다 동생이랑 한국 연속극 봤어요. 엄마, 아빠는 화났어도 봤어요. 김남주는 눈이 예쁘고, 멋쟁이.
-연속극으로 볼 때랑 한국 직접 오니깐 느낌이.
▲이상해요. 한국이 TV보다 안좋은 것 같아요.(망아요).
-결혼회사에서는 신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나요.
▲결혼 전에 (신랑이) 회사 다니고, 농사 안한다고.(안짓는다고). 잘 산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 와서(보니) 안 그래요. 농사짓고, 항상 힘들어요.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준 건가요.
▲예. 거짓말.(이죠). (남편) 통역한 사람도 무조건 다 좋게만.(말했어요). 그 때는 한국말 몰랐으니까. 통역사람 미워요. 다시 만나면... 근데 못만나니까.(웃음).

“농사 지으면 돈 나와요 근데 부모님이 다 가져요”

-결혼회사에 소속된 통역인가요.
▲예. 베트남 결혼회사 사람들. 좋게만 말해요. 한국 연속극에 나온 게 다 맞다. 멋쟁이 나라, 잘사는 나라...
-한국에서 가장 힘들 때는.
▲처음 한국 와서 진짜 무서웠어요. 한국말 못하고, 음식도 틀리고, 두 나라(가) 다 틀려요. 산 많고 무서워요. 친구들도 없고, 지금은 (남편이) 친구 못 만나게 하고, 잘 안해줄 때~ 많이.(힘들어요).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은 편인가요.
▲맨날 싸워요. 말 안 통하니까. 몇 번은 (신랑이) 때렸어요. 어떤 때는 (신랑이) 때리고, '너 나가라. 너 가라'고 말해요. 친구들도 (때리는 신랑이) 있어요.
-남편과 싸우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많이 울어요. 집에서 울어요. 마음 아프니까 또 울고.(오래 흐느낌)
-남편이 무서운가요.
▲욕해요. '네 이 년' 욕해요. 욕하면 무섭고 기분 나빠요. 결혼해서 (신랑이) 돈 안주고, 일 안주고, 맘대로 못하게 하고, 많이 힘들어요.
-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농사지으면 돈 나와요. 근데 부모님이 다 가져요.
-시부모님께 매일 용돈을 타서 쓰는 건가요.
▲돈 필요하면 '어머니 용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랬어요. (아기)유유값 주고, 친구 만나면 이천원 줘요. 차비만. 신랑은 돈 없으니까 안줘요.
-혹시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없어요. 힘들지만 얘기 있으니까 잘 살아야죠. 나중에 얘기(가) 크면 '엄마 고마워요'(라고) 생각해요.(생각할 거예요)

온누리안 리포트 취재진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취재를 해 나갈 수록 이들 여성들이 대부분 국제결혼 정보회사의 그릇된 정보에 속아 결혼한 경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대상 한국 남성을 대개 '도시에 거주하는 돈많은 회사원'으로 소개하는 결혼정보업체들 때문에 순진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도착하지마자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한류 드라마를 통해 품고 있던 한국과 한국 남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무척이나 무너진 자리에는 본국에서 보다 나은 것 없는 가난과 언어장벽에서 오는 고독이 자리잡기 일쑤다. 심지어 남편과 시부모로부터의 폭력과 학대도 빈번히 발생. 그녀들을 남몰래 흐느끼게 한다.
지난해(4월 2일자·연재 11회) '무민을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소개' 취재진이 지난 1월과 2월에 실시한 베트남 이주여성 2명과 인터뷰를 전문 소개. 그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다.

베트남 출신 신부 1,137명 69%가 정보업체 통해 결혼

광주·전남지역은 국제결혼 과정에서 타 지역보다 결혼정보업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업체를 통한 결혼 비중이 가장 높은 베트남 출신 여성들의 결혼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으로 시집온 외국인 신부는 모두 2천225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천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793명) ▲필리핀(98명) ▲몽골(62명) ▲일본(41명) ▲태국(21명) 등의 순이었다. 베트남 출신의 경우 1년 전인 2005년(542명)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정보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이 69.2%에 달했다.
또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가운데 남편이나 한국에 대한 정보가 일치했다는 응답은 41%에 그쳐 전체 평균(70%)를 크게 밑돌았다. 상당수 정보업체들이 한국의 생활수준을 과대포장하거나 남편들에 대한 경제적 능력 등을 부풀리면서 '부실결혼'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제2부 '남몰래 흐느끼는 그녀들'

<12> “한국생활 이럴 줄 몰랐어요”

#2

- ◆ 일시·장소 : 3월5일 나주교회
- ◆ 인터뷰 대상 : 응웬 누옌씨(가명·베트남·22세)
- ◆ 조사원 : 전남대 문화예술 특성화사업단 연구원 박경동
- ◆ 녹취 : " 연구보조원 김란

남편 술마시면 도망가요 농 속에 숨어 있어요 도망가면 안 때렸어요

-남편을 어떻게 만났지요?
▲(친구가) 결혼회사 소개했어요. 친구도 한국사람과 (국제결혼)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한국사람, 멋있고 좋아요. (결혼정보)회사 사람들 거짓말로 '신랑 잘 산다'고 말해요. 다 좋다고.
-결혼회사에서 신랑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나요.
▲잘살고, 200만원 넘게 나와요.(벌어요). 시내에서 살고, 농사 안짓고, 거짓말.(이죠).
-결혼회사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예. 나쁜사람.
-어떤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신랑) 잘 못살고, 농사해요.(지어요). 농사일 힘들어요.
-베트남에서 농사지를 때보다 힘들어요?
▲베트남에선 (농사)일 안했어요.
-한국에 와 보니깐 (결혼회사 말이)거짓말이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지금 힘들어요. (결혼)회사 사람들 거짓말에 (속아서) 한국 와서 힘들어요. 베트남 가고 싶어요.
-혹시 친구나 친척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반대해요. 친구나 친척이면, 한국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힘들다(고).
-국제결혼을 권유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만나면 친구 아니다.
-결혼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혼자 심심하니까, 집에, 또 형님 농사일 (돕는 게) 힘들어요.
-농사일 도와주면 형님이 돈을 주나요.
▲'너 일 거들어라. 다 끝나면 줄게'. 근데 끝나면 돈 안줘요. 가끔 배만 좀 주고(웃음).
-남편은 돈을 잘 주나요. 돈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하세요.
▲신랑은 돈 안줘요. 처음에 공부(하러) 갈 때만 4천원.(줬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가끔 (일자리) 소개시켜(줘)요. 주로 사장님들 밑에서 배 하고.
-남편이 술 많이 마셔요? 혹시 술 주정도 하나요.
▲이틀에 한 번 (술) 먹어요. 육 있어도 몰라요. 한국말이니까. 때리면 그냥 도망가요.
-신랑이 술 먹으면 도망가요?
▲예. 무서우니까. 농 속에 가만히.(있어요). 도망가면 안 때렸어요.
-결혼생활이 힘들 땐 누구랑 고민 상담해요?
▲혼자 많이 울었어요. 베트남 가고 싶어요.(싶었어요).
-지금도 베트남으로 돌아가거나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요.
▲(지금은) 그냥 살아요. 미래 생각 없어요. 지금 힘들어하고 베트남 가면 엄마, 아빠 마음이 아파요. 더 아파요. 안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참고 살아요. 엄마, 아빠 아파서 수술도 했고. 힘들어요...(울음) /정리=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미래 생각 없어요 한국에서 참고 살아요”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ALU- TES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을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매대학 South Bay 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진가를 느끼세요.
〈주의 요망!〉 흔히 시중에서 TESOL Certificate 과정, 수료증 과정이라는 것은 석사학위과정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ALU- TESOL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American liberty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 록이 되는 정규대학입니다.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해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의만큼은 자신만만!
먼저 입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의는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전 7:20~8:40 • 오후 4:40~6:10 • 오후 7:20~8:50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습의 거리 한해만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광주 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확장 이전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심는가발 탄생!!
심는가발이란 인체 두피에서 모발이 한가닥 한가닥 자란 것처럼 보이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울랙도 OK) 따라서 가발머리도 소포츠형으로 맞춤형이 가능합니다.
1997년 CAT 블러시 세계선수권대회 대상수상에 빛나는 전국 최고의 실력자 이수재원장이 직접 시술합니다.
1:1 원장직접 개별상담실 운영
타사제품과 비교할수 없는 전국 최저가 시술
(울랙도 OK) 따라서 가발머리도 소포츠형으로 맞춤형이 가능합니다.
30년 경력의 이용사가 직접착용시 컷트-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시내-외 출장가능 / 신용카드 환영
올랙스타일, 휘침, 수영, 시우나, 속구, 헬스, 테니스 어떤 운동에도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타사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점시술
※최저가 30만원~ ※여성무모(無毛)전환 현통회로OK!
※최상 두피물질들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 시술 가능
대산프리모남녀가발맞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2-4622~3, 673-5858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무료전화 080-323-5858
E-mail: daesangabal.co.kr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0505-313-1515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토마토 해커스 실전990 TOEIC강좌 퍼레이드!
동아외국어학원은 오로지 토익 만점(990점)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탄탄한 TOEIC강좌로 소문난 동아외국어에서 만점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호화막강 강사진! 열강! 역강!
TESOL박사 최갑원장
토익만점 11회 조성훈 교수
토익 분석 전문가 차준오 교수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습의 거리 한해만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